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작별

그들은 금강산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지만 손님이 아니었던가보다. 금강산도 수월과 파현을 받아 들일 인연이 아직 피어나지 않았던 것인가.

오직 그들이 마음에 두었던 회향담을 찾아간 길이 그 노승의 정애나 동참하고 불려난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진작 철원방 산중의 도피인사에 들른 것부터 황당무계한 노릇 뿐이었다.

공보주지의 앞뜰달항한 존재가 그렇고 표훈사 누각의 수월없는 노승의 단단치 않은 수작도 그렇고, 신계사에 담도하지마차 승장 화장에다 얼렁거리다가 실컷 어중숙의 후위와 배고픔을 누리고 풀려나야 했던 것이다. 아, 그들은 금강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두 사람은 무턱대고 북쪽으로 난 산중의 길을 향하였다. 그 길이 산중을 넘고있다 하지만 절도사 관내의 요충지인 군사도로

그것은 농사짓고 잡자고 하면서 이웃마을의 개짓는 소리 닭울음 소리로 들지 않는 그 고요한 농경사회의 백성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전란으로 피폐한 것을 보았으면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하지만 사람이란 본디 움직이는 생명이다.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고 하는 생명이 다. 도무지 한 군데에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고 뱉낸 동안 커다란 그늘이나 만들어 주는 겸나무나 당산나무 따위가 아니다.

아무리 오랜 농경사회에 익숙한 삶이라고 한들, 50리 밖을 타국으로 여기면 삶이라고 한들 그들의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상고시대의 그 무의식과도 같은 유목민의 유향으로 산 적이 있는 그런 파들이 후회가 아니던가.

그렇잖아도 그 후에서와 귀족 안에 어찌 버리고 파나는 길의 사람이 되는 일을 꿈



가 아닌 지방 사림(士林) 부스러기들조차 그들이 속한 서원(書院)에서의 가혹한 사형(私刑)이 다반사였던 것이다. 사도가 무섭다는 늙은 8사동이고 서원이

라고 말을 던져보지만 파현의 입에서 무슨 정다운 대꾸가 나올 리 없었다. 아니 그들 사이의 이같은 사이는 점점 굳어져서 그들이 안변방에 이르러 관소(關



사람들이 길에 많이 나타내면 결코 태평세월이 아니다 그것은 큰비 직전에 개미나 미물들의 행렬이 다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난세의 한 징후이기도 하다 아무튼 사람들이 길을 가는 일이 많아졌다

를 짊어지고 있는지라 길은 제법 규모가 있었고 북쪽 남쪽의 인마(人馬)가 통한 곳이 아니었다.

이따금 병사들이 대오를 잘 짓지 않은 채 지나가기도 하였다. 그들은 숲에 백성의 뜻을 저버린 위압으로 사람을 사나운 눈초리로 훑어대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길에 많이 나타내면 결코 태평세월이 아니다. 그것은 큰 비 직전에 개미나 미물들의 행렬이 다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난세의 한 징후이기도 하다.

앞의 시대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오르는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난세의 한 삽입을 창사(淸史)에 끼워넣을 작정이니 그것을 누가 함부로 짐작하겠는가.

일찍이 백년 앞을 내다보았다는 예언가 남사고(南臺古)조차도 어찌 백년은 고사하고 십년 앞을 미리 알 수 있었겠는가.

바로 그가 밭길을 가는 발길에 돌변이 있어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내가 이 돌변을 짐작 있어버렸구나"하고 개탄하지 않았던가.

아무튼 사람들이 길을 가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철령 산중의 호랑이조차도 갑자기 불어난 인기(人氣) 때문에 숲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옛 중국 검삼사람 노자(老子)가 말하였다. 사람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것을 좋은 세상이라고.

무지 않을 것인가. 마, 어떤 상고시대의 과거야말로 어느 경우에는 아주 새로운 세계로 나타내서 사람들의 가슴을 미물의 관능처럼 일렁거리게 하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세상이란 바로 이런 길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주자학파의 그

무섭다는 늙은 민삭동(滿朔童)이라는 말도 그럴 듯하였다.

바로 이런 시절에 수월과 파현은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길을 나섰다.

중은 제대로 맛보아라는 뜻이 철차 철철하여 한발 길이 어긋나면 어느 곳으로 들어가 오도가지도 못할지 모르게 발달하였다. 소나무는 정정하고 꿩잡나무는 뻗뻗하였다. 이를테면 새소리도 경기도 또한 철령지경에서 들던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이런 산중의 그윽한 정취를 반영하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한 사이로 말이 없었다. 말이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사이가 나쁜 상태인 것처럼 반전을 부리는 동행이어서 그것도 다분하였다.

어찌다가 수월이 혼잣말처럼 "저 불우리는 금방 허물어질듯이 위태위태하네 그러

서 그 재주가 옛 재갈공명이나 유기(劉基)에 견주어 떨어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의 조산인 재자로는 옥여(玉如) 일여(一如) 묘정(卯定) 대법법주(大覺法主)등 1백여명이 있어 그들에게 그의 비술(秘術)을 가르쳐 주어 그들 하나하나가 능히 숨어있는 8도의 승려들을 불러 일어나게 하였다.

한 사람을 세워 조선의 왕으로 삼고 또한 사람으로 중국의 왕으로 삼으려는 원대한 구상 아래 때를 보아 현성 북악산 밑 임진왜란 때 백성에 의해 불태워진 그 폐허와 함께 권모술수로 나라를 보내는 대궐에 쳐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엄청난 사변을 앞둔 시절이라 사전에 그 전모를 모르고 있던 관군 쪽에서는

나는 것이었고 뒤이어 경이 앉아있던 자리 저쪽에서 웅 퍼꺼머리 장정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 장정이 파현이 내던진 지팡이를 꼬나 잡고 미지 불술(柳術)을 부리듯 몇번인가 공중에서 둘러대며 다가왔다.

"어디 가시는 화상들이우?"

말투가 담담했다.

수월이 짐중히 응대하였다.

"공부하다가 공부 꼭 막혀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까."

"공부가 막히셨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우리하고 활발한 공부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입니까?"

"그것이야 천하 각처가 다 공부하는 곳 아닙니까?"

그때 파현이 나섰다.

"소승이 동참하겠습니까."

장정은 파현의 몸을 한번 훑어본 뒤 수월을 훑어보았다.

"화상께서는 어따십니까?"

"소승이야 더 따들 일이 있습니다."

"홀소이다. 더 따들 일이 있다면 그래야겠지요. 그러나..."

하고 그는 말을 끊었다.

그 장정이 파현에게 십년지기(十年知己)나 되는 것처럼 파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우리는 감시다"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월은 어이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만큼 가면 파현이 거이코 한번 돌아다 보았다.

"수월스님!"

이라고 불렀다.

수월은 파현을 쳐다볼 따름이었다. 파현이 달려왔다.

"스님! 소승은 아무래도 스님보다 내생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기운도 보이고 있었다.

"짐작되는 일이라도 있는가?"

파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한 마디 말을 남겼다.

"금강산 신계사 회향담도 이 사람들과

## “우리하고 활발한 공부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파현은 장정을 따라가고...

동태라 합니다.

"그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신계사 사미(沙彌)가 그 노승 다비 때 무심코 곁에 있는 소승에게 이리 쪽이나 저리 쪽이나 곧 죽어야 할 역적(逆賊)으로 불릴 신세인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스님과 이 장정이 한 통속 입을 어찌 아는가?"

"소매달등을 깨면 검은실이 신계사 중들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같은 표시입니다."

수월은 고개를 들어 울창한 숲 위로 들려있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럼...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파현의 직방인사와 함께 파현은 숲속의 장정한테로 성큼성큼 가는 것이었다.

어떤 냄새를 맡아 기할이 삼해진 것이 사실이었다.

파현이 불은한 지로 풀려나지 않게되어 서야 수월이 관소로 다시 가서 충청도 무욕도에서 수도하다가 석왕사에 가는 동행이라고 말해서 가까스로 파현이 방면된 것이다.

하지만 파현이 방면된 뒤에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오니 고생의 시작이로세" 하고 수월이 위로 했지만 그 말에도 통 대꾸가 나올 줄 몰랐다.

그들은 그저 걸어갔다. 파현이 품고 있던 지팡이를 저만치 숲속에 던져버렸다. 이제 지팡이조차도 필요없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의 표명인지도 몰랐다.

그러자 지팡이가 떨어진 곳에서 살던 꿩 두 마리가 그 둔탁한 몸짓으로 놀라 달아

그림·조항숙

#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및 불교원전연구·어학교육 안내

## 가산회향회

—후원가족 일의 안내—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이념과 사업에 동참하시고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본회 후원회원 '伽山禪向會'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 후원회회비: 월 1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희망하실 분
- 지부회회비: '가산상', '연구상'이나 '학술상' 등으로 저우로 지원하실 분
- 자유회회비: 연 50만원 이상을 분할 또는 일시불로 희망하실 분

이상의 후원회비는 三藏(經律論)의 정신과 그 회비운영의 개량으로 佛性(佛性)과 그 조화(調和)가 함께 하는 佛土(佛土)를 위한 것입니다.

● 회비가 되시면 —

- 본회의 주 목적사업인 불교대사전(10년 계획) 구입시 특권을 드려,
- 본회의 강좌와 각종 교회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정년과 교회예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사업의 모니터링과 피서시 본원 방문을 위한 열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회비는 —

- 본원으로 직접 정금 납입하시거나
- 지로(17666753) 또는 온라인 구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 학술, 출판, 교화, 불교대사전 편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학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96년도 1기 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및 불교원전연구 과정

구분	코드	강좌명	교재	강사	강의시간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K-01	한국불교 금석학강좌	역대고승비문(고려시대편) —이지관—	강주·지관 스님 (본원 특강)	격주 목 19:30-21:00
	H-11	한문 불전연구과정	대방광불화엄경수소언의초 —장명찬—	강주·지관 스님 (본원 특강)	격주 금 19:30-21:00
'96 제1기 불교원전연구과정	S-11	범어 원전연구과정	Abhidharmakośa (俱舍論) —정영—	이중철 (서울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격주 월 19:30-21:00
	T-11	티벳어 원전연구과정	Bsgom-pahi rim-pa (修習次第) —Kamalasila—	허일범 (전국대학교수, 본원 연구위원)	격주 화 19:30-21:00
	P-11	팔리어 원전연구과정	불교원전언어연구의 팔리어본 —최봉수—	최봉수 (경희대학교수, 본원 연구위원)	격주 수 19:30-21:00

### 불교어학연수과정

구분	코드	강좌명	교재	강사	강의시간
'96 제1기 불교어학연수과정	H-01	불교 한문강독	선원제4전집도서(釋源譚4詮集都序) —정영—	김영옥 (고려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매주 목 13:00-15:00
	S-01	범어 어학연습	Learn Sanskrit in Thirty Days	이중철 (서울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매주 월 13:00-15:00
	T-01	티벳어 어학연습	티벳어의 기초와 실천 —허일범—	허일범 (전국대학교수, 본원 연구위원)	매주 화 13:00-15:00
	P-01	팔리어 어학연습	불교원전언어연구 —최봉수—	최봉수 (한국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매주 수 13:00-15:00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원소재)와 사진 2매 ● 접수처: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접수일: 12월 31일까지

도서출판 가산문고에 내는 책들은 .....

- 『伽山學報』 창간호
- 『伽山學報』 제 2호
- 『伽山學報』 제 3호
- 『伽山學報』 제 4호(신간)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韓國佛敎文化思想史』 (상·하) —노준근명리학회 편—
-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신라편)
-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1)
-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2)(신간) ●
- 『韓國佛敎所依經研究』 —이희관—
- 『南北傳六部律藏 比較研究』 —이지관—
- 『伽山學報』 海印寺誌, —이희관 편—
- 『信行日誌』 —이희관—
- 『信行日誌』 —이희관—
- 『增補 四集私記』(신간) ● —이희관—
- 『要經序說』(재정판) ● —이희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우당기념관 2층) 기획연구실 765-9602 학술출판부 765-9603 사전편찬부 745-1663 FAX 765-5673